

촘스키의 언어혁명

근래에 언어학, 심리학, 철학, 인공지능 및 신경과학의 다섯 분야가 주축이 되어 형성·발전시키고 있는 인지과학은 바로 촘스키가 언어학을 정신에 관한 연구분야라고 규정하고 원리나 규칙들의 형식적 표상체계로서의 문법의 개념을 설정한 데 크게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李廷政

서울대 교수·언어학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현대 지성의 대표라고도 불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도 늘 꼽히는 학자로서, 언어학 자체뿐 아니라 심리학, 철학, 전산과학의 형식언어이론 및 정치비평 등 여러 인접 분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 큰 사상가라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초석

촘스키가 불러 일으킨 혁명적인 사상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은 언어이론이 현상의 가시적인 외면이 아닌 외면적 현상의 밑바탕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정신(mind)의 구조와 관련된 원리를 찾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학 연구를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시킨 점이다. 또한 그러한 주장의 뒷받침으로 언어현상의 원리(또는 규칙)들을 명시적인 형식적 표상의 체계로 구축하는 작업을 한 것이 업적의 내용이다. 촘스키가 언어학에서 이론 변혁과 업적은 곧바로 인접 분야들에도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가 이론 변혁을 '촘스키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이다. 이는 한편 근래에 학문 선진국들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정신(mind), 지능(intelligence), 인지(cognition)에 대한 학문간 연구 분야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초석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다.

촘스키는 언어이론이 현상의 가시적인 외면이 아닌 외면적 현상의 밑바탕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구조와 관련된 원리를 찾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언어학 연구를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촘스키는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자 해리스의 지도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30년대에 이론적 기반이 다져진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 특히 블룸 필드 언어학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언어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관찰가능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정신·의지·마음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기계론을 지지했다.

또한 언어요소들의 가시적인 분포를 중시하는 분포주의가 팽배하고, 그러한 요소를 찾아내는 일정한 정밀한 분석적 발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 해리스 밑에서 촘스키는 회의에 시달렸다. 원대한 개념적 변혁이 없이 절차만의 보완으로 만족한다면 언어학은 이론적 학문으로서는 말단적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1953년부터는 분류론적인 발견 절차의 형성 노력을 버리고, (변형)생성문법을 형성해 그에 전념케 되었다.

촘스키가 시작한 이 문법도 언어구조를 중요시하나, 종래의 구조주의와는 구조에 대한 시각이나 언어학의 목표 및 범위에 대한 기본 가정들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생성이론의 구조의존의 원리에서

는 '구조'가 요소들의 나열적인 선형 구조만을 뜻하지 않고, 계층구조를 중시하고 심층구조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촘스키는 미국 MIT 언어학·철학과에서 30여 년째 그러한 새로운 언어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평론에도 정열을 쏟고 있다. 헤게 모니를 권 관료적 지식인들이 정보와 결정을 독점하는 데 대항해 그는 지성과 원칙에 입각해 미국정부의 전쟁정책에 도덕적 공격을 퍼는 데 앞장서 왔다.

언어학과 무관치 않은 그의 정치비평

그는 1983년 모스크바 방송으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규탄하며 반군들에게 소련의 '침공'에 대항해 계속 투쟁하라고 호소한 소련 언론인 단초프의 용기를 찬양하면서, 미국의 언론인과 기타 지식인들은 독단적 체제와 너무나 굴종적이어서 침략을 침략으로 감지조차 못하는 것이 아닌가 비판했다.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의 언론매체는 국가 선전체제에만 무서운 힘으로 동원되었을 뿐 미국정부가 KAL기의 항로 이탈과 위태로움을

격추 전에 알고 있었고 정보기관들이 KAL기와 교신해서 항로 교정을 시킬 시간과 수단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거제시에는 꿀먹은 벙어리 노릇만 했음을 지적했다. 그의 정치비평은 그의 인성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가정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때 추상적 차원에서는 그의 언어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면 촘스키가 그의 저서들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본적인 물음과 가정은 무엇인가? 특히 그의 최근의 저서 《언어와 지식의 문제 : 마나구아 강연(1988)》와 강연(1988년 1월말 UCLA에서의-필자가 그곳에서 객원교수로 가르치면서 접함) 및 다른 분야 학자들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촘스키에 따르면, 연구의 초점이 구조주의에서는 행태(behavior)나 그 소산이던 것이 생성언어학에 와서는 형태 이전의 정신/뇌의 상태 쪽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여기서 정신은 연체 ‘소프트웨어’, 뇌는 그것을 담는 경체 ‘하드웨어’라 할 수 있다-필자 주). 말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정신(mind) 또 궁극적으로는 뇌에 물리적 형상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전제하의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부딪치게 된다고 했다.

첫째, 지식의 체계란 무엇인가? 무

엇이 언어의 지식을 구성하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의 정신/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둘째, 이 언어지식의 체계는 어떻게 정신/뇌 속에 일어나는가? 즉 어떻게 습득되는가?

셋째, 이 언어지식이 어떻게 말(또는 글과 같은 이차적 체계)로 사용되는가?

넷째, 이 지식의 체계와 이 지식의 사용에 있어서 물질적 기초가 되는 물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과제는 개별언어의 문법기술의 차원으로서, 해당 언어가 언어표현에 어떻게 구체적인 정신적 표상을 할당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결정하는가 하는 일이다. 이는 바로 개별 생성문법의 과제로서 개별언어를 아는 사람의 정신/뇌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촘스키는 말한다.

언어연구에 있어서의 플라톤

언어 지식의 기원이나 습득에 관한 두번째 질문은 ‘플라톤의 문제’라고도 할 만한 것이다. 이는 러셀이 후기에 바꾸어 표현한 다음 질문과 같다. “인간은 세상과의 접촉이 짧고 그 접촉이 개인적이고 제한돼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즉 주어진 자료의 제한성에 비추어 공유하는 지식이 풍요하고 복잡하고 명료한 점을 설명해야 하는

언어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촘스키가 제시하는
해답의 가정은 바로 보편문법의 명세를 보임과 아울러 그 문법의
원리들이 경험과 작용하여 개별언어를 내놓는 방식을 설명하는 일이다.

‘자극의 빈곤’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플라톤이나 라이프니츠의 해답은 근대적인 관점으로는 다음과 비슷하다. 즉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어떤 측면들은 타고 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으로 부여되고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마치 우리 신체에서 팔과 다리를 자라게 하고 날개가 나지 않게 하는 공통된 천성의 요소들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세기간 서양 사상의 대부분을 지배해 온 협의의 경험론 가정들과는 동떨어지나 흠과 같은 큰 경험론자의 생각과는 그리 낮은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언어연구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 언어 지식도 어떤 측면은 타고 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촘스키가 합리론에 입각해 제시하는 해답이다. 그리하여 언어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촘스키가 제시하는 해답의 가정은 바로 보편문법의 명세를 보임과 아울러 그 문법의 원리들이 경험과 작용하여 개별언어를 내놓는 방식을 설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는 철학자 콰인 등과도 대격론을 벌인 바 있다.

보편문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언

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 language faculty)의 성격규명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언어습득 기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습득 기구는 인간정신의 타고나는 부문으로서, 제시되는 경험을 개별언어의 지식체계로 전환시키는 기구라고 본다. 보편문법은 언어적 경험 이전의 언어능력의 ‘시발상태’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상호작용하는 부문들을 가진 복잡한 체계인 정신/뇌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라는 종(種) 특유의 것이어서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또한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킨다는 효과를 지니지만 그렇다고 생성언어학이 과학적 추구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다. 언어와 동물의 소통수단과의 질적 차이의 주장은 도덕적 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습득에 관한 둘째 질문은 첫째 질문과 같은 기술적(記述的) 차원이 아니고 설명적 차원이다. 보편문법의 고정불변의 원리들의 체계로부터 허용가능한

방식들 중의 하나로 변이의 매개변인들의 값을 정함으로써 한국어, 영어 등 개별언어들의 속성들을 연역해 낸다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능력(즉 보편문법의 원리들)을 타고난 아이가 한국어가 쓰이는 사회적 환경에 위치하면 그 언어능력은 환경의 사건에서 관련된 언어자료를 선택하게 되고 아이는 언어능력의 내부구조가 정한 허용방식으로 이 자료를 써서 개별어인 한국어를 구성하며, 이 언어가 이제 정신(mind)속에 포용된다.

여기서 촘스키가 말하는 ‘언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정신에 표상되는 체계로서의 개인 심리의 현상을 일컬을 뿐 공동사회의 공유물로서의 사회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이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겠다.

‘유추’의 입장에 정면반대

언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세번째 질문을 촘스키는 지각문제와 산출문제의 두 가지로 가르는데 전자는 듣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고 후자는 더 불확실한 것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데카르트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사용의 창조적 상상’이라 할 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중심과제라는 것이다.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언

어형태를 산출하고 제한 없이 자유의지적으로 자유롭고 비결정적이면서도 상황에 맞게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창조적 양상을 초기에는 문법체계의 규칙의 귀환성(recursiveness)이라는 수학적 구조의 개념과 연관시키려 하였으나, 촘스키는 이제 자연언어의 구조가 수학적 구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데카르트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힘든 단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첫번째 문제와 동일시하여 언어의 지식이 자전거 타기나 장기 두기와 같은 기능이고, 이는 습관과 성향으로 환원되며 창조적 상상도 새 형태를 이미 들어본 바에 비추어 ‘유추’에 의해 말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는 정면으로 맞선다.

앞의 세 가지 질문은 언어학과 심리학의 영역에 드는 것으로 보면서 촘스키는 전부터 언어학을 인지심리학의 일부라고까지 말해 왔으며, 클라크 같은 인지심리학자는 촘스키 때문에 인지심리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촘스키 자신도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 및 세번째 질문 중 지각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진전으로 애깃거리가 많으나, 산출 문제와 물리적 기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적어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

언어지식 체계의 물리적 기제를 묻

인간의 언어능력은 환경의 사건에서 관련된 언어자료를 선택하게 되고 언어능력의 내부구조가 정한 허용방식으로 이 자료를 써서 개별어를 구성하며, 이 언어가 이제 정신(mind)속에 포용된다.

는 네번째 질문에 관계된 심신(mind-body)문제에 있어서 촘스키는 언어학이 추상적 이론과 설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의 정신론(mentalism)을 주장하면서도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적 개념의 정신(mind)은 배격한다. 결국 추상적인 정신의 구조와 그 안의 언어의 지식체계에 해당하는 뇌 속의 물리적 기제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현대 과학철학의 심신대응 이론에 가까운 느낌을 주나, 한편 심신문제는 분명하게 개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로서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생성언어학의 '생성'이라는 말이 '명시적 설명'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이 언어학이 지난 30여 년 동안에 세계의 언어학계를 주름잡아 패러다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 촘스키 자신의 최근 이론은 지나치게 통사적 원리에만 집착하고 의미론의 중요성을 최소화한다든지, 언어의 사회적, 상호작용적인 기능으로서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측면을 무시한다든지, 상황에 맞는 언어사용의 능력인 화용론적(pragmatic)능력을 그의 소위 언어능력 즉 문법능력과

구별하여 언어학 영역의 밖에 두려 한다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연구주제로 떠오르는 언어외적 인지

근래에 언어학, 심리학, 철학, 인공지능(전산과학) 및 신경과학의 다섯 분야가 주축이 되어 형성·발전시키고 있는 인지과학(認知科學, cognitive science)은 바로 촘스키가 언어학을 정신(mind)에 관한 연구분야라고 규정하고 원리나 규칙들의 형식적 표상체계로서의 문법의 개념을 설정한 데 크게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기본 가정과 초기의 형식적 표상작업이 인지과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으나, 최근의 인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서는 촘스키가 계속 도외시하고 있는 의미·화용론적 영역, 담화와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의 인지영역, 맥락 및 상황과의 관계, 기타 언어외적 인지와와의 관계가 주요 연구주제로 떠오르는가 하면, 입장이 다른 연결론(connectionism)도 상당한 기세로 발전하고 있다. ■